

크기는 적당, 성능은 우수

-27인치 TV



최근 대형 TV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 27인치 TV는 말할 것도 없이, 31인치 TV도 대형 TV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27인치 정도라면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크기며 오디오와 세트로 장식장을 꾸미기에도 적당하다.

컨슈머 리포트지는 350에서 600달러의 27인치 TV를 대상으로 시험하였는데 그 결과 400 달러 이하의 제품들은 화질을 향상시켜주는 콤팩터와 같은 주요 기능이 부족한 반면 27인치 중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들은 불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 그 덕분에 가격이 700 달러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가격대라면 31인치 혹은 32인치 TV도 구입할 수 있다.

화질 - 모든 제품이 우수

27인치 TV 정도면 화질은 믿을 만 하다. 컨슈머 리포트지가 시험한 제품 절반 이상이 '우'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모두는 '우' 평가를 받았다.

컨슈머 리포트지는 시험을 위해 강력하고 깨끗한 비디오 신호를 각각의 TV수상기에 쏘아보냈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수신하는 방송신호는 초기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와 일반적으로 다르다. 즉 송출도 중 공중과 지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애들로 인해 신호가 왜곡되기도 하고, 안테나로 TV신호를 수신하는 가정이라면 TV화질은 방송국의 송출기와 수신가정과의 거리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지형에 따라 많이 달라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27인치 TV에 관한 상품 테스트 결과를 실었다. 이와 함께 향후 디지털 방송의 시작과 더불어 TV시장에서 큰 매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TV에 대한 조연도 덧붙였다.

이 글은 미국 컨슈머 리포트지에 실린 글로 소비자들의 TV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게재하였다.

● 번역/김언영



진다.

비디오신호 시험결과 27인치 TV는 안테나 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는데 뛰어났고 난시청지역에서도 적합한 제품이었다.

시험한 모델 대부분은 신호가 약한 VHF 혹은 UHF 신호를 수신할 때 우수한 화질을 나타냈다. 이 시험에서 JVC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케이블 셋톱 박스나 위성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TV의 방송신호 수신 능력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셋톱 박스나 위성 접시 안테나는 방송신호가 TV수상기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화면 조정을 끝내기 때문이다.

케이블 셋톱박스 부착없이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는 가정이라면 JVC와 히타치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제품은 인접 케이블 채널간 전파간섭을 해결하는데 미흡했다.

음질 - 대체로 미흡

27인치 TV의 화질은 고화질이나 음질은 고음질이 아니다. 뉴스 스포츠 혹은 토크쇼와 같이 음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 가정이라면 27인치 TV는 무난하나 영화나 음악 채널을 주로 시청한다면 음질이 뛰어난 TV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TV 수상기를 외부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멀티스피커나 스테레오 스피커 등 외부 오디오 시스템으로 TV의 오디오 신호를 보냄으로써 고음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이 인기

고전력 소비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절전 효과가 있는 제품이 인기이며 TV 또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전기요금에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 있는 가정이라면 전력 소모가 적은 제품이 유용할 것이다.

27인치 정도면 보통 1시간당 1킬로와트 사용시 8.4센트정도의 전력이 소비되어 통상 TV의 경우 8년 정도가 평균수명이라면 다른 모델들 보다 70달러 정도 전력소비가 적게 든다. 또한 취침예약 기능이 있어 TV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고안되어 취침동안 TV를 켜둠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매결정은 화질의 다른 특징으로 결정토록

TV구매시 주요 고려대상인 화질은 27인치 TV의 경우 모두 우수했

다. 그러므로 화질의 다른 특징들로부터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제품의 고장수리율등을 따져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외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TV신호를 안테나로 수신하는지, 난시청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음질이 중요한 고려사항인지 등에 따라 TV 구입이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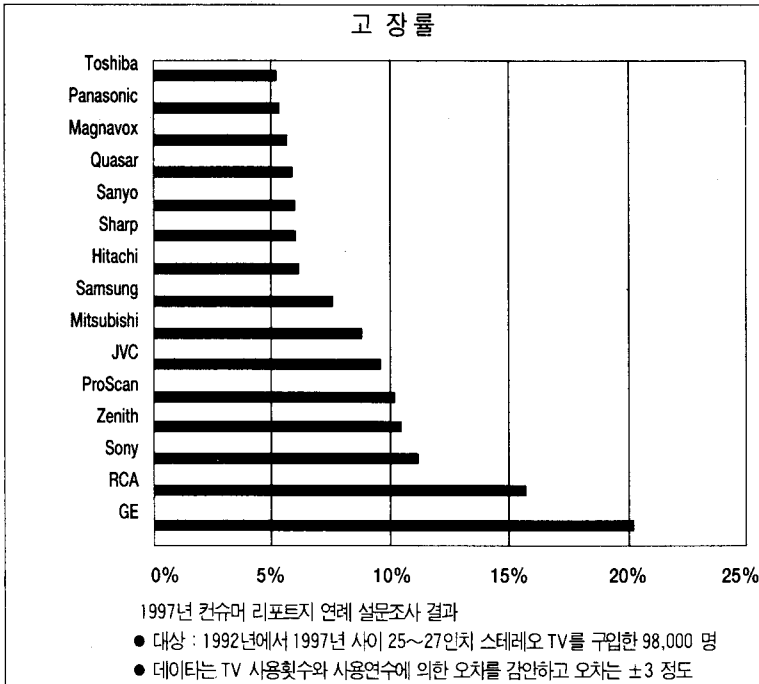
● 영화나 음악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거나, 외부 오디오 시스템을 따로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음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TV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필립스의 Magnavox MX2790B는 500달러로 음질에서 '수' 평가를 받은 모델이고 도시바의 CF27G50은 400달러는 '우' 평가를 받은 모델로 두 제품을 권장한다.

● TV를 다른 오디오 장비와 연결해 사용할 경우 TV의 음질은 고려

회사명	모델명	가 격	평 점					화 질	음 질	셋톱박스없이 케이블 TV수신	사용 편리성
			가	양	미	우	수				
1. Toshiba	CF27G50	\$ 400	■	■	■	■	■	우	미	우	
2. RCA	F27681GY	500	■	■	■	■	수	우	미	우	
3. RCA	F27679BC	490	■	■	■	■	수	우	미	우	
4. Sony	KV-27V26	580	■	■	■	■	수	우	미	우	
5. JVC	AV-27890	580	■	■	■	■	수	우	가	우	
6. Philips	Magnavox MX2790B	500	■	■	■	■	우	수	미	수	
7. Sony	KV-27S26	540	■	■	■	■	우	미	우	우	
8. Samsung	TXG2746	350	■	■	■	■	수	가	미	우	
9. GE	27GT622	350	■	■	■	■	우	미	우	우	
10. Zenith	Z27H32D	450	■	■	■	■	우	미	수	우	
11. Panasonic	CT-27G32	500	■	■	■	■	우	미	미	우	
12. Hitachi	27CX21B	400	■	■	■	■	우	미	양	미	
13. Zenith	Z27A11G	350	■	■	■	■	우	가	미	우	
14. Panasonic	CT-27G12	390	■	■	■	■	우	가	미	미	

해외 소비자 정보 • 27인치 TV 상품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 삼성의 TXG2746은 350달러로 화질에서 '수' 등급을 받은 모델로 가장 추천할 만하다.

● TV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사용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사는 가정이라면 최고 등급의 도시바나 최하위 등급의 파나소닉 CT-27G12를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고음질이 필요하다면 파나소닉 제품은 선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 케이블 박스 부착없이 케이블을 시청하는 가정이라면 인접채널의 전파간섭을 가장 잘 해소하는 제니스의 Z27H32D, 450달러, 모델을 권하고 싶다.

대형 TV 구입시 주의사항

31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구입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 구매하고자 하는 TV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대형 TV라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 27인치 TV와 비교해 31인치 혹은 32인치 TV는 100달러 정도 더 비싸다. 하지만 비싼만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TV가 놓이게 될 방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TV 시청거리가 적정거리보다 가까우면 TV내부의 피사체를 읽어내는 선인 주사선으로 인해 눈이 피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방크기에 알맞는 TV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25~27인치 TV는 8피트(2.4m), 31~32인치 TV는 10피트(3m), 35~36인치는 11피트(3.4m)가 가장 적절한 시청거리이다.

- 제품 성능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니스의 32인치 Z32X31D는 710 달러로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갖추고 있고 PIP, Channel block-out 그리고 자동 음량조절 등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